

함께 걸으며 느낀 Mar 여정 ... (1월 3일 2026년 - KCLC 동중부)



"MAR 행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에도, 형제자매님들의 다녀오신 후기가 MAR 행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다음 MAR 행사에는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찰을 공유합니다 "

내려놓으며 걸었던 여정 " 불편함과 낯섬 속에서도 함께 걸으며,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MAR 여정이었습니다 "

"다시 보아라"라는 초대 " 다시 보아라" 하시는 주님의 초대 안에서,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"



나눔 안에서의 성찰 "익숙하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나누는 가운데, 개인적 성찰과 CLC의 과제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"

다름 안에서의 축복 "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음이...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임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"

함께 걷는 공동체의 기쁨 " 전·현 의장님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~~ 어린아이처럼 재잘거리며 핑거푸드를 끌고

걷는 자매님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얼굴들 속에서, 함께 걷고 나누는 공동체의 새로운 아름다움과 기쁨을 다시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"

젊은이들과의 연결에 대한 질문 “젊은 층과의 연결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며, CLCer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“

참여 감소에 대한 성찰 “ 기존 MAR 회원과 일부 그룹의 참여 감소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, MAR 행사는 젊은이 초대와 참여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성찰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“

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 “구유의 나눔 체험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 움직였고, 하나하나의 순간이 빛이 되어 더 주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다 “

만남으로 드러난 CLC의 삶 “젊은 이들을 초대하고 동행하는 CLC의 삶이 구체적인 만남과 결실로 드러나는 시간을 체험하였다 “

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 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해,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감사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“

반가움과 아쉬움 “ 새로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미주 전체 CLC 회원들을 만나 반가웠지만, 각 문화 그룹의 참여가 낮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“

참여를 가로막는 인식 “ MAR 미팅이 리더들만의 자리로 인식되거나, 영어권 CLC 회원들과의 만남이 참여를 어렵게 느끼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“

공동체의 기쁨 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 나눔과 동중부 KCLC의 간식 ~ 그리고 EXCO의 수고 안에서 이번 만남은 MAR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“



KCLC 동중부